

‘폴레랑스’의 전도사가 그린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초상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와 펴낸 홍세화씨

‘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씨(53)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뻥뻥한 자들이 오직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뻥뻥한 사회”라고 표현한다. 그는 한국의 기형적인 발전형태가 사회구성원들에게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주의, 배타적 이기주의 등을 심어줬다고 말하면서, 이같은 병폐들이 미처 정화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신자유주의의 폭격을 받았다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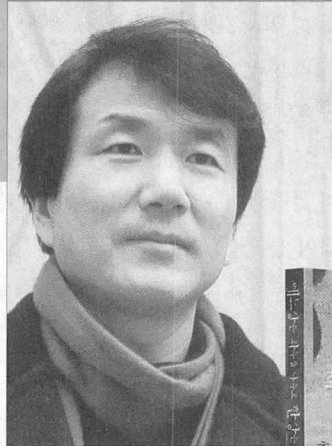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지나친 획일화의 길을 걸어왔다.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경쟁과 효율이란 미명 아래 지배력을 더욱 강고히 하고 있다. 저항 정신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폴레랑스’ 사상 적극 수용해야

그는 ‘폴레랑스’의 전도사다. 첫 책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창작과비평사)를 펴낸 이후, 우리 사회에 폴레랑스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애써왔다. 우리말로 ‘관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말은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한다’는 의미. 폴레랑스가 있는 사회에서는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토론하고 설득하는 반면, 폴레랑스가 없는 사회에서는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한다.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한겨레신문사)에서 그가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폴레랑스 사상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보편적 인권과 개인의 자유, 그리고 창조적 개성을 신장하기 위해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 사회를 비판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나라는 프랑스다. 때로 그의 글을 읽다 보면 프랑스는 ‘절대선’이고 우리는 한낱 ‘미개국’ 처



홍세화씨(상형문자 사진제공)

한겨레신문사/A5신/320면/7500원

럼 느껴지기도 한다. 프랑스에도 실업자, 인종차별, 동성애 문제 등 많은 갈등이 있을 테고, 또 우리와 프랑스의 사회적 성숙도와 정신적·문화적 전통이 다른 데도 말이다.

“충분히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글쓰기 작업은 한국 사회의 진보와 개선을 위한 것이지 프랑스 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단지, 한국 사회가 프랑스 사회만큼, 아니 그 반 정도라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그리고 사회 정의와 연대 정신이 스며 있으며 사회보장이 뿌리내리길 바랄 뿐이다.”

그는 일부 종교와 습속을 제외하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언론·종교·법률 등 모든 부문의 제도와 양식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들은 구미에서 직접 들어왔든,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왔든 모두 ‘수입품’이라는 것이다.

“내가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비판적 글쓰기 작업을 하는 것은 수입된 제도와 양식들의 역사

적 맥락을 찾고, 그 알맹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프랑스 사회라는 ‘거울’을 통해 지적하고자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하드웨어만 수입한 한국의 여러 제도와 양식에 들어 있어야 할 마땅한 소프트웨어를 프랑스 사회라는 참조물을 통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식인의 역할 중요해

그는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 지식인들에게서 그는 실망을 금치 못한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파의 목소리를 언론과 지식인들이 대신해주고 있지만, 한국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침묵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중 위에 군림하려 들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현실과 지식인들이 지향하는 사회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인지 일부 비판적 지식인들은 지나치게 급진적이거나 이상주의로 흐르기도 한다. 이는 비판이 현실을 이반하는 중대한 오류를 저지름으로써 나타난 역기능이다. 포스트모더니즘처럼 프랑스에서 비롯된 담론들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키려 했을 때 발생한 여러 가지 오류도 이런 현실 이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왜 폴레랑스인가》(필리프 사시에, 상형문자)를 우리말로 옮긴 그는 올 봄 출간 예정인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가제)을 집필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농민운동가 조제 보베와 프랑수아 뒤푸르의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도 번역 중이다. - 최갑수 기자